

키케로와 헬레니즘철학: 『아카데미의 회의주의에 관하여』에 나타난 인식론을 중심으로*

김 용 민

한국외국어대학교

헬레니즘 철학시대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기원전 323년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100년경까지 계속되었다. 기원전 1세기경에 헬레니즘 철학이 쇠락했다는 것은 바로 이 시기에 로마제국의 시대에 들어서 부흥하게 될 플라톤주의(Platonism)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Aristotelianism)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키케로는 기원전 106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3년에 죽었으므로, 근 220여 년간에 발달되었던 헬레니즘철학을 조망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철학 작품들을 통하여 대부분의 자료가 망실되어 있는 헬레니즘철학의 내용을 충실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했던 회의주의적 신아카데미의 도그마에 연연하지 않고 헬레니즘시대의 대표적인 철학 학파인 아카데미학파, 소요학파,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의 관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했으며, 각 학파의 주장들을 하나씩 상호 비교했으며, 이성적으로 가장 일관되어 보이는 이론을 옹호했다. 키케로는 철학은 논리학-물리학-윤리학으로 구성된다는 헬레니즘철학체계를 수용하고 있으며, 항상 철학체계란 관점에서 헬레니즘철학을 이해하고 있다. 『아카데미의 회의주의에 관하여』는 철학체계의 출발점인 논리학 혹은 인식론을 다루는 대화편이다. 여기서 키케로는 지루한 논쟁에 휩싸였던 인식론의 위상을 “찬성과 반대라는 양쪽의 측면”에서의 대화를 통해 한 차원 높게 격상시키고 있으며, 지식이 윤리적 삶의 근원이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 우리는 이 대화편에 대한 이해 없이는 키케로의 철학체계에 들어설 수 없다.

주제어: 신아카데미, 구아카데미, 스토아학파, 제논, 안티오크스, 헬레니즘철학, 논리학, 인식론, 자기보증적 인상, 허황된 인상, 회의주의, 진리의 기준, 연쇄법, 역설, 불구별성 문제, 무행동 논변

* 이 연구는 200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I. 서론

서양에 있어서 고대 철학의 시대는 고전그리스 철학시대, 헬레니즘 철학시대, 로마제국 철학시대의 세 시대로 나누어진다. 고전그리스 철학 시대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pre-Socratics)을 포함하여,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흔히 헬레니즘 시대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기원전 323년부터 시작하여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우스 왕조가 멸망한 기원전 31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러나 철학사적으로 볼 때 헬레니즘 철학 시대는 기원전 30여년 경에 종말을 고했다고 하기보다는 기원전 1세기경에 종말을 고했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Frede 2005, 772). 필자도 이 견해에 따라 헬레니즘 철학 시대를 기원전 323년부터 기원전 100년 사이의 기간으로 보고자 한다. 로마제국 시대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의 직위에 오른 기원전 27년부터 서로마제국이 멸망한 476년까지 말하나, 로마제국이 영구적으로 분열된 해인 395년까지로 보는 견해도 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313년) 국교로 인정됨에(380년) 따라 로마제국의 전통적 사고가 붕괴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로마제국 철학시대는 헬레니즘 철학시대가 종말을 고한 기원전1세기부터 시작하여 기원후 4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헬레니즘 철학시대는 흔히 사상의 암흑시대로 여겨져 왔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너무 엄청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 이후의 철학자들은 이 두 거장 철학자의 그늘에 가려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그 결과 이 시대는 “아류 후계자들의 시대”,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사후의 쇠락 시대”로 간주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의 한 연구는 이 시대가 암흑시대가 아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헬레니즘 철학자들은 새로운 사색의 영역을 열기도 하고, 심각한 논쟁과 토론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행동을 통하여 수동적인 아류 후계자들의 지위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탁월한 사상으로 헬레니즘 철학시대를 장식하고 있다는 것이다(Algra 2005, Preface, xi). 헬레니즘 철학 시대에는 기존의 두 학파, 즉 플라톤이 설립한 아카데미학파(Academy)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립한 소요학파(Peripatetic) 외에, 주요 학파로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가 만들어졌으며, 기타 군소 학파로 피론(Pyrrhon)을 추종하는 회의주의자,

소크라테스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메가라학과, 키레네학과, 키닉학과 등이 각각 만들어졌다. 이렇듯 많은 학파가 존재했고 각 학파 간에 철학적 논쟁이 치열했다는 사실은 헬레니즘 철학시대가 사상적으로 암흑시대가 아니라 역동적인 시대, 찬란한 시대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찬란한 시대의 철학을 잘 전달해 주고 있는 사람이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106~43 B.C.)이다.

헬레니즘 철학시대에 많은 철학적 작품이 출간되었지만 대부분 유실되고 책 이름만 전해지고 있다. 온전하게 전해지는 작품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이 시대의 철학연구에 있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후대의 작가에 힘입어, 헬레니즘 철학에 접근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키케로, 플루타르크(45년 이후~120년 이후), 갈렌(c. 130~c. 210), 섹스투스 엠피리키우스(c. 160~210 AD),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230년경 활동한 한 것으로 추정), 세네카(c. 4 B.C.~65AD), 에픽테투스(c. 55~c. 135) 등이 포함된다.¹⁾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다른 아닌 키케로이다. 키케로는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헬레니즘 철학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만약 키케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헬레니즘 철학이 지닌 중요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헬레니즘 철학시대는 사상의 암흑시대로 남았을 것이다.

키케로는 기원전 106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3년에 죽었으므로, 역사적인 헬레니즘 시대(323~31 B.C.)의 정치가이자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헬레니즘 철학시대의 종착점을 기원전 1세기로 잡았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키케로는 근 220여 년간에 발달되었던 헬레니즘 철학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원전 1세기경에 헬레니즘 철학이 쇠락했다는 것은 바로 이 시기에 로마제국의 시대에 들어서 부흥하게 될 플라톤주의(Platonism)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Aristotelianism)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사적으로 볼 때 키케로의 입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는 고전그리스 철학을 잘 알고 있었고, 헬레니즘 철학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으며, 헬레니즘 철학과는 다른 내용을 지닌 제국시대의 철학이 서서히 도래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키케로의 입지는 매우 독특한 것으로 키케로와 동시대를 살았던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키케로가 고대 철학의 발전에 기여한 학문적 공로는 그가 어떤 독창적 업적을

1) 헬레니즘 철학에 관련된 이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Algra(2005, 5-15) 참조.

남겼는가라는 “현실적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도 있지만, 만일 그의 업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가상적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도 있다. 필자는 후자의 가상적 기준을 통해서 볼 때 키케로의 철학적 위상이 보다 분명해진다고 생각한다. 키케로는 그의 저서 많은 곳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신아카데미학파인 아르케실라우스, 카르네아데스, 필론, 구아카데미학파인 안티오크스, 소요학파인 테오프라스트스, 제논을 위시로 한 스토아학파인 크리스푸스, 파나이티우스, 에피쿠로스학파를 창시한 에피쿠로스, 그리고 회의주의자인 피론 등등을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주장이나 이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설명과 해석을 부여하고 있기도 한다. 키케로의 설명과 해석은 그가 활동했던 시대인 기원전 1세기 초의 보편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의 고전기 그리스 철학과 헬레니즘 철학에 대한 이해는 그와 근 21세기 정도 시간적 간격을 둔 현재의 우리가 보아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키케로의 작품들은 자신보다 3~4세기에 걸쳐 앞서서 살았던 그리스 철학가들의 이론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만약에 그의 작품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무려 24~5세기라는 장구한 세월을 뛰어넘어 믿고 의지할 권위자의 도움 없이 그리스 철학자들을 직접 이해하려는, 위험할 수도 있는 학문적 시도를 감행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키케로의 작품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것을 디딤돌로 삼고 이것에 의존해서 보다 확실한 지적 기반을 배경으로 그리스 철학에 접근해 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키케로의 문장은 그리스고전철학과 헬레니즘철학과의 관계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많은 학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소크라테스에게서 찾고 있는데, 왜냐하면 서로 다른 추종자들이 이미 변화되고 다양해지고 모든 방향으로 가지를 쳐버린 소크라테스 논의의 다양한 측면을 각각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위 상호 불일치하는 학파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뚜렷이 구별되고 차이를 지녔다. 비록 모든 철학자들은 아직도 소크라테스의 추종자라고 불리길 원하고, 진실로 추종자라고 믿고 있었지만 말이다. 첫째, 플라톤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와 크세노크라테스가 나왔는데, 이들의 학파는 각각 소요학파와 아카데미로 불렸다. 다음으로, 소크라테스의 대화에서 인내와 견고함에 대한 아이디어에 특별하게 매혹되었던 안티스테네스로부터 먼저 키닉학파가 나오고 나중에 스토아

학파가 나왔다. 최종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쾌락에 관한 논의에 매우 감명을 받았던 아리스티푸스로부터 키레네 철학이 나왔는데, 이 철학을 아리스티푸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허심탄회하게 또한 무조건적으로 방어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날 쾌락이라는 척도로 모든 것을 측정하는 사람들(에피쿠로스학파를 말함-필자)은 비록 대단한 겸손함을 지니고 측정하긴 하지만, 자신들이 거부하지 않는, 명예로운 사람들의 주장을 충족시키지 않고, 자신들이 감싸길 원하는 쾌락을 방어하지 않는다. 또한 기타의 다른 학파의 철학자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소크라테스의 추종자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에레트리아 학파, 에틸리아 학파, 메가리아 학파, 피론 학파가 속한다. 그러나 이런 학파들은 현재 존재하는 학파들의 강한 논쟁에 의해 아주 오래 전에 깨어지고 사라져 버렸다(*On the Orator*, 3.60-62).²⁾

키케로는 특히 그의 철학 작품인 『아카데미의 회의주의에 관하여』, 『최고선과 최고악』, 『투스쿨룸에서 대화』, 『신의 본성에 관하여』, 『예언에 관하여』, 『의무론』 등에서 신아카데미학파, 구아카데미학파, 소요학파,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학파 등의 철학적 입장을 대화의 형식을 빌려 상세하게 드러내고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이 대화편들은 고전 그리스 철학이나 헬레니즘 철학 연구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키케로의 작품이 특히 빛을 발하는 부분은, 특히 남아 있는 작품이 별로 없는 헬레니즘 철학 분야이다. 우리는 키케로를 통해 헬레니즘 철학에 접근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재구성해 낼 수 있다.

이와 같이 “만약 키케로가 없었더라면”이라는 “가상적 기준”에서만 본다면 키케로가 철학자로서 지닌 독창성이 무시되고 단순한 기록자의 측면만이 강조될 위험성이 있다. 뮌젠(Mommsen)은 이러한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키케로를 단지 “미사여구를 잘 만드는 사람”(phrase-maker) 또는 “기록을 잘 하는 사람”(journalist)으로 여겼다.³⁾ 같은 맥락에서 키케로는 “철학의 기록자”

2) 여기서 키케로가 에피쿠로스학파를 소크라테스의 추종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용문의 말미에 있는 현재 존재하는 학파는 아카데미학파, 소요학파,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를 의미한다. 이후 키케로 작품에 대한 인용은 원칙적으로 영문 명칭과 권, 장, 절을 표기하기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라틴어 명칭을 쓰기도 한다.

(philosophical journalist)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리고 키케로를 현실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에도, 그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최상의 철학자의 반열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⁴⁾ 그러나 그가 『국가에 관하여』, 『법률에 관하여』, 『웅변가에 관하여』, 『브루투스』, 『웅변가』 등의 작품에서 개진한 정치학, 정치철학, 법학, 웅변술, 수사학에 관한 이론은 “로마인의 관점”이란 독창적 관점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보완하고 확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⁵⁾ 그의 철학 저서에서 로마인의 관점은 “절충주의”(eclecticism)로 나타난다. 그는 신아카데미학파에 속해 있지만, 학파의 “도그마”(dogma)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고려에 따라 학파의 경계를 넘어 옳다고 생각되는 이론을 자신의 이론 안에 주체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하였다.

본 논문은 헬레니즘 철학시대에 존재했던 대표적인 네 학파인 아카데미학파, 소유학파,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의 영향을 받은 키케로가 이 학파들의 “인식론”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고,⁶⁾ 이러한 그의 설명

3) 키케로에 대한 후대 사람의 평가는 상당히 상반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몽테뉴의 키케로에 대한 평가는 사뭇 신랄한데, 그는 키케로의 글 쓰는 방법은 상당히 지루하며, 키케로는 핵심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에라스무스는 키케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키케로의 작품인 『호르텐시우스』를 읽고서 정신적 변화를 겪으면서 신에 대한 사랑과 기도로 향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에라스무스는 어릴 때는 키케로의 책보다 세네카의 책을 좋아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키케로의 책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키케로가 자신의 영혼에 영감을 주었고 자신을 훌륭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Cicero(1971, *Introduction*, xxxi-xxxiii) 참조.

4) 닐 우드(Neal Wood)는 위대한 정치사상가의 반열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흄스, 로크, 루소, 헤겔, 마르크스를 포함시키면서, 키케로는 마키아벨리, 흄, 보댕, 몽테스키외, 버크, 존 스튜어트 밀과 함께 주요 정치사상가의 반열에 포함시키고 있다. Wood(1988, 12) 참조. 물론 이와 같은 우드의 평가는 논쟁점이 될 수 있다.

5) 키케로가 지닌 로마인의 관점에 대해서는 김용민(2007, 2008) 참조.

6) 후술될 바와 같이 헬레니즘 철학을 구성하는 세 분야는 논리학, 윤리학, 물리학이다. 여기서 논리학은 인식론을 포함하고 있다. 필자는 윤리학과 물리학(혹은 자연철학)에 관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고,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정치적 삶, 윤리적 삶의 기초가 되는 인식론만을 다루고자 한다.

과 평가가 과연 독창적인 것인지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헬레니즘 철학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키케로의 인식론에 관한 작품인 『아카데미의 회의주의』를 중심으로 인식론에 대한 키케로의 관점을 알아보고, 결론인 제4장에서는 키케로가 헬레니즘 철학의 인식론의 발전에 독창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헬레니즘 철학의 성격

1. 헬레니즘 철학의 등장배경과 시대구분

헬레니즘 시대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기원전 323년부터 시작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가 죽은 지 1년 후인 기원전 322년에 죽는데, 실질적으로 헬레니즘 철학시대는 그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알렉산더 대왕은 대제국을 이루어 그리스의 문명과 문화를 그리스 밖의 광대한 지역에 전파시켰다. 알렉산더의 계승자들은 왕정의 형태로 제국을 통치하였는데, 이에 따라 자유와 독립을 이상으로 삼았던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제국에 종속된 지위로 전락하여 정치적인 자기 결정력, 즉 정치적 주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제국의 지배 하에 놓인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주체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외면의 정치세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폴리스에서 추구되었던 공동선을 포기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안심입명을 좇고자 하였다.

철학 역시 변화된 세계에 맞춰 새롭게 적응했으며, 이에 따라 철학의 정신과 목적도 변화했다. 그리스인들은 더 이상 경험에서 유리되고 추상화된 고전철학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비판된 이후 헬레니즘 시대에 들어서서는 그 영향력을 급격히 상실했다. 그리스인들은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실천적인 행복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며, 철학이 개인의 행복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랐다. 철학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했으며, 진리를 추구한다는 목적을 지닌 추상적 학문에서 인간의 욕구, 쾌락, 행복 등을 충족시켜주는 방법 및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수단적 학문으로 변질되었다.

스토아학과와 에피쿠로스학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표적 철학으로 새롭게 부상하였으며, “덕이 곧 행복”이라는 스토아학파의 윤리학과 “쾌락이 곧 행복”이라는 에피쿠로스학파의 윤리학은 첨예하게 대립되었다.⁷⁾

앞서 지적했듯이, 헬레니즘 철학시대가 언제 끝났는지에 관해 기원전 31년 설과 기원전 1세기 설이 대립되어 있다.⁸⁾ 헬레니즘 철학시대가 기원전 31년에 끝난 것으로 보는 입장은 이 시기에 다음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부흥하기 시작했으며, 둘째, 플라톤 철학이 부활하기 시작했으며, 셋째, 아카데미학파의 회의주의가 쇠락했다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헬레니즘의 전성시대에는 스토아학과와 에피쿠로스학과는 지배적인 사조로 군림했었고, 아카데미학과와 소요학파는 약세를 면치 못하였으나, 기원전 30년경에 이르면 지배적인 두 학파는 그 영향력을 잃고,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다시 지배적인 사조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원전 100년경에 헬레니즘 철학시대가 종말을 고했다고 보는 입장은 위에서 지적된 세 가지 변화가 이미 기원전 100년경에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입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부흥은 흔히 안드로니쿠스(Andronicus of Rhodes)가 기원전 30년경에 망실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작을 발견하고 그의 작품을 편집했던 사실과 연관되어 설명되고 있으나, 기원전 1세기 설을 따르는 위 입장은 그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본격적으로 연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 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스토아 철학자 파나이티우스(Panaetius, c. 185~110/9 B.C.)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자주 언급하고 있으며, 그의 제자인 포시도니우스(Posidonius, 135~51 B.C.)는 아리스토텔레스화되었다고 말해질 정도로 아리스토텔레스철학에 강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철학의 부흥은 기원전 1세기 초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둘째, 안티오쿠스(Antiochus, c. 130~c. 68 B.C.)는 기원전 90년경에 회의주의적

7) 키케로는 스토아학과와 에피쿠로스학과와 윤리학을 포함하여 아카데미학과, 소요학과와 윤리학을 『최고선과 최고악』, 『투스쿨룸에서 대화』에서 다루고 있다.

8) 아래에 기술된 이 두 가지 설에 대한 설명은 Frede(2005, 772-782)에 의존하고 있다.

경향에 빠진 신아카데미(New Academy)를 거부하고 그 옛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지녔던 전통을 회복하고자 구아카데미(Old Academy)를 창설했는데, 이는 플라톤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위 입장은 보고 있다. 이 입장은, 신아카데미는 진리는 획득될 수 없으며 진리는 오직 가능성의 기반 하에서 추구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음에 반하여, 안티오쿠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회의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지식의 확실성과 그 획득가능성을 믿고 있었다고 해석하면서, 동시에 지식의 확실성을 믿는 스토아철학의 인식론을 수용해서, 구아카데미의 인식론을 보다 세련되고 치밀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에서 언급된 파나이티우스와 포시도니우스 역시 플라톤철학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기원전 1세기 초에 플라톤주의가 서서히 부활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신아카데미의 회의주의는 구아카데미의 공격을 받았고 기원전 30년부터 50년 사이에 몰락했지만, 그 몰락의 조짐은 훨씬 이전인 기원전 100년경 안티오쿠스의 스승인 필론(Philo, 159/8~84/3 B.C.)에서 찾을 수 있다고 위 입장은 주장한다. 아르케실라우스(Arcesilaus, 316/5~241/0 B.C.)부터 시작되어 카르네아데스(Carneades, 214/3~129/8 B.C.)를 거쳐 클리토마쿠스(Clitomachus, 187/6~110/9 B.C.)에 이르기까지 발달된 신아카데미는 “급진적 회의주의”(radical scepticism)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필론은 이미 기원전 1세기경에 이를 비판하면서 “완화된 회의주의”(mitigated scepticism)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급진적 회의주의나 완화된 회의주의 양자 모두 지식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데는 일치하지만, 후자는 불확실성의 조건 하에서 대상에 관한 “이성적인 신념(reasonable beliefs)”을 형성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점에서, 이성적인 신념을 부정하는 전자와 구별된다. 필론의 완화된 회의주의는 후에 “오류가능주의”(fallibilism)로 변질되는데, 이는 절대적 진리의 가능성을 부인한다는 면에서 급진적 회의주의의 성격을 갖는다. 『아카데미의 회의주의에 관하여』에서 안티오쿠스는 필론이 회의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세 가지 중요한 변화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부흥, 플라톤주의의 부활, 그리고 신아카데미의 회의주의의 몰락은 기원전 30년경이 아니라 기원전 1세기경부터 태동되었다고 보는 입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기원전 1세기에 교육을 받고 활동을 했던 키케로는, 기원전 1세기경에 마감된 헬레니즘

철학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철학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는 변화의 소용돌이를 감지했고, 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또한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절충주의적 관점을 채택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신아카데미의 회의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이것에 절대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입장, 보다 중립적인 입장, 아니 보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철학을 구축하고자 했다.

2. 헬레니즘철학의 세 분과: 논리학, 물리학, 윤리학

헬레니즘시대에 들어서서 철학은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논리학(Logic), 물리학(Physics), 윤리학(Ethics)의 세 분야로 분화되었다. 그리스고전 철학시대에 속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을 이론학, 실천학, 창작학의 세 분야로 나누었는데, 이와 같은 분류는 헬레니즘 시대의 분류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헬레니즘 철학을 세 분야로 나눈 사람은 크세노크라테스(Xenocrates)로 알려져 있다. 이 세 분야는 흔히 논리학, 물리학, 윤리학의 순서로 정렬되는데, 이러한 순서는 철학은 논리학에서 출발하여 물리학을 거쳐 윤리학에서 정점에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 분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흔히 다음과 같은 비유나 유추가 사용된다. 철학을 과수원에 비유할 경우에 나무는 물리학을, 열매는 윤리학을, 올라타는 논리학을 상징한다. 철학을 달걀에 비유할 경우에 윤리학은 노른자, 물리학은 흰자, 논리학은 껍질로 비유되며, 철학을 동물에 비유할 경우에 물리학은 살과 피, 논리학은 뼈, 윤리학은 영혼에 비유된다(Algra 2005, Preface, xv).

이 세 분야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각각 추구하고 있는데, 논리학(혹은 인식론)은 “어떻게 세계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물리학은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그리고 윤리학은 “존재하는 세계 속에서 행복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논리학은 “진리의 기준”(criterion of truth)을 결정하는 것을, 물리학은 우주의 본질 및 그 법칙을 확인하는 것을, 그리고 윤리학은 우주의 법칙을 인간의 실천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헬레니즘시대 이전의 철학은 위와 같은 세 분야로 구성되는 철학체계를 지니지 않았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 물리학, 윤리학이라는 각각의 학문분야에는 관심을 두었으나, 이 세 학문이 구조적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

있다. 그러나 헬레니즘시대에 탄생한 스토아학과와 에피쿠로스학파는 구조적 체계를 엄두에 두고 자신들의 논의를 개진하였다. 논리학-물리학-윤리학으로 구성된 철학체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스토아학과와 에피쿠로스학파는 다음 세 가지 점에 일치하고 있다. 첫째, 논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학파는 감각을 지식의 유일한 원천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며, 둘째, 물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학파는 물질만이 유일한 현존이라고 보는 점에서 일치한다. 셋째, 윤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학파는 행복은 감정이나 두려움,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에 의존한다고 보는 점에서 일치한다. 스토아학과와 에피쿠로스학파가 결과론적으로 감각, 물질, 행복을 중시하고 있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으나, 어떻게 이것들이 자신들의 철학체계에서 중요한가에 대한 근거논리는 서로 다르다. 철학체계의 정점에 있는 윤리체계에서 볼 때 두 학파 모두 현명한 사람을 마음의 평화를 얻은 행복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으나, 에피쿠로스학파는 마음의 평화는 자연의 법칙에서 의지를 해방시킴으로써 얻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스토아학파는 마음의 평화는 자연의 법칙에 의지를 복종시킴으로써 얻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다(*On the Nature of the Gods*, Translator's introduction, vii-viii).

키케로는 헬레니즘시대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논리학-물리학-윤리학으로 구성된 철학체계를 수용하고 있으며, 항상 철학체계란 관점에서 신아카데미, 구아카데미, 소요학파, 스토아학과, 에피쿠로스학과 등이 주장하는 이론을 소개하고 비판하거나 옹호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체계란 관점을 지니고 있지 않았으나, 이들을 계승한 아카데미학과와 소요학파는 특히 스토아학과와 논쟁을 하는 가운데 철학체계란 관점에서 자신들의 이론을 재정립하였다. 키케로의 주요 철학작품인 『호르텐시우스』, 『아카데미의 회의주의에 관하여』, 『최고선과 최고악』, 『투스쿨룸에서 대화』, 『신의 본성에 관하여』, 『예언에 관하여』는 키케로가 철학체계에 입각해 있음을 잘 보여준다. 『호르텐시우스』는 전반적으로 철학을 옹호하는 작품이다. 『아카데미의 회의주의에 관하여』는 논리학에 관한 작품이며, 『최고선과 최고악』과 『투스쿨룸에서 대화』는 윤리학에 관한 작품이며, 『신의 본성에 관하여』와 『예언에 관하여』는 물리학에 관한 작품이다. 또한 키케로는 각각의 작품들 속에서 관계되는 주요 학파들의 주장을 논리학, 물리학, 윤리학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해내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III. 키케로의 철학체계와 헬레니즘철학

1. 키케로의 철학 작품과 철학체계

키케로는 어릴 때부터 철학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공직에 있을 때에도 틈이 나면 철학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철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철학서를 집필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공직에서 물러서고 난 후인 기원전 45년 이후였다. 그는 젊었을 때 공직을 통해 애국을 했었지만, 공직을 물러나 한가로움을 갖게 되었을 때 애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로마시민을 교육시킬 것을 생각했고, 라틴어로 좀 더 쉽게 교육시킬 목적으로 철학 작품들을 집필했다고 말하고 있다.

키케로는 철학의 여정을 팜플렛과 같은 소책자인 『호르텐시우스』로부터 시작했다.⁹⁾ 여기서 그는 철학을 공부할 것을 권장했다. 그가 본격적으로 철학서를 저술하기 시작한 때는 자신이 애지중지 했던 딸 툴리아가 죽고 난 후 자기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서 『위안서』를 쓴 이후부터였다. 물론 철학에 관한 작품인 『호르텐시우스』는 딸 툴리아가 죽기 이전에 쓰였지만, 딸의 죽음은 그로 하여금 철학에서 위안을 찾도록 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음에 쓴 책이 『아카데미의 회의주의에 관하여』인데, 키케로는 이 책을 처음에는 총 2권으로 출판했다가 1주일 만에 수정해서 총 4권으로 재출판했다. 현재에 전해오는 것은 『루쿨루스』(Lucullus)라는 이름을 가진 초판본 제2권과 재판본 제1권의 일부이다. 그 다음에 쓴 책이 총 5권으로 이루어진 『최고선과 최고악』인데, 제1~2권에는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에 대한 소개와 비판이 제3~4권에는 스토아학파의 윤리학에 대한 소개와 비판이 그리고 제5권에서는 구아카데미를 창건한 안티오쿠스의 윤리학에 대한 소개와 비판이 행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쓴 책이 총 5권으로 이루어진 『투스쿨룸에서 대화』인데 익명의 스승으로 등장하는 키케로와 질문을 제기하는 익명의 젊은

9) 키케로는 자신의 철학체계의 전반적인 구조를 『에언에 관하여』 제2권 1~3절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키케로는 철학의 여정에 나서기 앞서서, 정치철학서인 『국가에 관하여』와 『법률에 관하여』를 저술했으며, 수사학 작품인 『웅변가에 관하여』, 『브루투스』, 『웅변가』를 저술했다. 이에 관하여 김용민(2007, 2008) 참조.

이들 간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키케로는 여기서 죽음, 고통, 슬픔, 정신적 혼란, 덕이라는 실천적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덕이 있는 철학자는 죽음, 고통, 슬픔, 기타의 정신적 혼란을 극복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쓴 책이 『신의 본성에 관하여』인데 이 책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피쿠로스학과와 스토아학파의 신학이 소개되고 이에 대한 아카데미학파의 비판이 다루어지고 있다. 제1권에서 에피쿠로스학파인 발레이우스(Valleius)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신학이론을 개진하나, 아카데미학파인 코타(Cotta)가 이를 비판하면서 에피쿠로스 이론은 종교에 치명적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제2권에서는 스토아학파인 발부스(Balbus)가 스토아학파의 신학이론을 개진하며, 제3권에서는 코타가 역시 아카데미학파의 관점에서 스토아학파의 신학을 비판한다. 제3권의 상당한 부분은 망실된 상태이다. 『예언에 관하여』가 뒤를 이어 출간 되었는데, 이 책은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언이나 점은 스토아학파에서는 물론 로마인의 삶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제1권에는 예언에 대한 긍정적인 주장이 개진되어 있고 2권에는 비판적인 주장이 개진되고 있는데, 키케로는 미신적인 예언은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책의 뒤를 잇고 있는 책이 『운명에 관하여』인데, 이 책은 숙명론(determinism)에 관한 찬반양론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상당한 부분은 망실된 상태이다.

키케로의 철학적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책으로는 자신의 친구인 아티쿠스에게 헌정했던 『노년에 관하여』와 『우정에 관하여』가 있고, 아테네에서 유학하고 있던 아들 마르쿠스를 위해 쓴 『의무에 관하여』가 있다. 이 책들은 본격적인 철학서라기보다 윤리적, 도덕적 교훈을 담은 문학적 에세이(『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와 시민(혹은 정치가)을 위한 도덕 지침서(『의무론』)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키케로는 자신의 철학체계를 논리학-윤리학-물리학의 순서로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순서는 헬레니즘 철학체계의 일반적인 상승 순서인 논리학-물리학-윤리학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말년의 작품들이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가 물리학에서 다시 윤리학으로의 상승을 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키케로의 철학체계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 『아카데미의 회의주의에 관하여』이다. 이 책에 앞서서 발간된 『호르텐시우스』와 『위안서』가 소책자에 불과하고, 또한 망실되었다는 점을 고려

하면, 이 책은 명실상부하게 키케로 철학체계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을 통하지 않고서는 키케로의 철학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2. 『아카데미의 회의주의에 관하여』를 통해서 본 헬레니즘철학 개관

1) 『아카데미의 회의주의에 관하여』의 구성

키케로는 이 책을 원래 『카툴루스』(*Catulus*)와 『루쿨루스』(*Lucullus*)의 두 권으로 출간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1주일 만에 책을 수정하여 총 4권의 책으로 새로 출간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제1판에서의 주요 화자인 카툴루스와 루쿨루스가 제2판에서는 키케로 당대의 유명한 학자인 바로(*Varro*)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제1판에서 카툴루스와 루쿨루스는 아카데미학파의 이론에 조예가 깊은 장군들로 묘사된다. 카툴루스는 필론이 『로마서』(*Roman Books*)를 쓰기 전에 견지했던 “완화된 회의주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루쿨루스는 신아카데미학파의 회의를 비판하면서 스토아주의의 도움을 받아 지식의 획득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구아카데미학파의 안티오크스를 대변하고 있다. 제2판에서 안티오크스를 추종하고 있는 학자인 바로가 이 두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한편, 키케로가 신아카데미의 입장에서 구아카데미의 이론의 비판하고 있다. 두 판본이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부분은 제1판의 2권 부분인 『루쿨루스』와 제2판의 1권 일부이다.¹⁰⁾ 전체적으로 볼 때 키케로가 이 작품에서 다뤘던 내용의 4분의 3 정도가 전해지고 있는데, 학자들은 비록 이 작품의 일부분이 망실되어 아쉽기도 하지만 남아 있는 부분에서 키케로의 철학적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1판 작품에서 대화의 시대적 배경은 키케로가 집정관을 지낸 이듬해인 기원전 62년(혹은 61년)이며, 공간적 배경은 해변에 위치한 카툴루스의 집과 호르텐시우스의 집이다. 대화는 연속 이틀 동안 행해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전자의 집에서 행해진 대화가 『카툴루스』, 그리고 후자의 집에서 행해진 대화가 『루쿨루스』에

10) 본 논문에서 『루쿨루스』에서 인용할 경우 출처를 *Lucullus*로 표기하며, 제1판의 2권이라는 의미에서(*Lucullus* 2.xx)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제2판 1권에서의 인용은 출처를 *Academicus libri*로 표기하며, 제2판의 1권이라는 의미에서(*Academicus libri* 1.xx)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기록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카툴루스와 루쿨루스 모두 장군이자 정치가였는데, 키케로는 이 대화편에서는 이들이 철학적 소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설정하여 정치 권력과 철학적 지혜를 겸비한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다.¹¹⁾ 제2판의 대화의 시대적 배경은 키케로가 이 책을 집필한 당시인 기원전 45년이며, 정계에서 은퇴한 키케로가 친구 아티쿠스와 함께 쿠마이에 있는 집에 한가롭게 쉬고 있다가, 바로가 로마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집에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설정을 취하고 있다. 바로는 제1판에 등장했던 카툴루스나 루쿨루스에 비해 본다면 정말로 철학에 조예가 깊은 학자라고 할 수 있다. 키케로는 바로를 주요 화자로 내세움으로써 『아카데미의 회의주의에 관하여』에서 다루는 주제를 철학적으로 한 차원 높게 고양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다.

2) 제2판 1권(Academici Libri Book 1)에 나타난 헬레니즘철학 개관

제2판의 1권에서 바로는 안티오크스의 추종자로서, 안티오크스의 이론(다시 말해 구아카데미학파의 이론)을 대변한다. 그는 안티오크스와 마찬가지로 아카데미학파, 소요학파, 스토아학파가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다. 안티오크스의 이론을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키케로의 요청에 따라서, 바로는 구아카데미학파의 관점에서 고대 그리스철학의 역사를 개관한다. 그는 그리스철학은 윤리학, 물리학, 논리학의 세 분야로 구성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세 분야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전통적인 철학자들은 플라톤에게서 물려받은 철학의 세 분과 이론부터 시작했는데, 그 한 부분은 삶의 방법과 윤리적 성향을 다루며, 두 번째 부분은 자연과 숨겨진 주제들을 다루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표현에 있어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무엇이 일관되고 일관되지 않은지를 다룬다(Academici Libri 1, 19).¹²⁾

11) 카툴루스와 루쿨루스는 실재했던 로마의 장군들이지만, 이들이 대화편에서 키케로가 묘사하고 있듯이 높은 수준의 철학적 소양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12) 바로의 입을 통해 키케로는 철학을 윤리학, 물리학, 논리학이라는 세 분과학문으로 구분한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후대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구분을 크세노크라테스(Xenocrates)가 시작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바로는 윤리학, 물리학, 논리학의 관점에서 아카데미학과, 소요학과, 스토아학파의 철학체계를 차례차례 다룬다.¹³⁾ 우선 그는 아카데미학파의 철학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Academic Libri* 1.19-32). 첫째, 윤리학의 영역에서 아카데미학파는 인간은 자연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혼의 좋음(덕), 육체의 좋음(건강), 그리고 외부적 좋음(재화)을 모두 갖추어야 인간은 행복해진다고 주장한다. 둘째, 물리학의 영역에서 아카데미학파는 사물을 능동적인 '힘'과 이 힘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수동적인 것인 '질료'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질료는 힘에 의해 결합되어 물체가 되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우주의 힘인 지성 혹은 완전한 지혜, 혹은 신이라고 불리는 정신에 의해서 결합된다고 주장한다. 셋째, 논리학의 영역에서 아카데미학파는 진리는 수시로 변하는 감각이 아니라 변치 않는 이성에 근거해서 밝혀지는 것으로 주장한다.

다음으로 바로는 소요학파를 비교적 간단하게 언급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소요학파가 비록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배경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플라톤철학을 계승하고 있어서 아카데미학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Academici Libri* 1.33-34).

끝으로 바로는 제논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스토아학파의 철학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Academici Libri* 1.35-42). 첫째, 윤리학의 영역에 있어서, 제논은 오직 덕만이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세 가지 재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아카데미학파나 소요학파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그는 건강한 육체나 재물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플라톤의 영혼의 삼분설을 부인하고, 인간의 영혼은 이성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성이 약화될 때 불완전한 판단인 의견이 생기고, 이 의견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할 때 자발적인 감성이 생기게 된다.

둘째, 물리학의 영역에 있어서 제논은 "지성이나 신"을 물질을 결합시키는 힘으로 보았던 아카데미학파나 소요학파와는 달리, "불"을 그 결합의 힘으로 보고 있다. 그는 물질은 물질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으며 정신이 물질을 움직일 수 없다

13) 여기서 바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로로 하여금 얘기를 시키는 것은 물론 대화편을 쓴 키케로이다. 다양한 학파의 철학체계를 세 분야로 나누어 파악하려는 키케로의 전형적인 방법론을 독자들은 주시해야 한다.

는 유물론적 관점을 주장한다.

셋째, 논리학의 영역에 있어서 제논은 감각이 지식의 원천임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감각을 통해 느낀 “인상”(impression)에 자신의 경험에서 우리나라 “동의”(assent)가 결부될 때 이 인상은 “자기보증적”(self-warranting, 그리스어로 *katalēptikē*) 인상이 되며 이는 지식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동의를 얻지 못한 인상은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이 될 수 없게 된다. 바로는 제논의 논리학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제논은 모든 인상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그 대상을 드러내는 인상만을 신뢰했다. 이러한 종류의 인상은 그 자체를 가지고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제논은 이 인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apprehensible)이라고 불렀다. … 그러나 이 인상이 일단 수용되고 인정받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손에 잡는 것처럼 제논은 이것을 ‘포착’(apprehension) 또는 ‘파악’(grasp)이라고 불렀다. … 그는 감각에 의해서 포착된 인상을 지각(perception) 그 자체라고 불렀다. 그리고 만약에 지각이 이성에 의하여 제거될 수 없는 방법으로 꼭 잡혀있다면, 제논은 이 지각을 ‘과학적 지식’(scientific knowledge)이라 불렀고 그렇지 않다면 ‘무지’(ignorance)라고 불렀다. 무지는 의견의 원천인데, 의견은 잘못된 인상은 물론 알려지지 않은 인상을 포함하는 미약한 상태이다.¹⁴⁾

그러나 제논은 파악만이 우리의 신뢰를 보장한다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파악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과학적 지식과 무지 사이에 위치시키고 있다. 파악으로 인해 제논은 감각을 믿을 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감각에 의해서 야기된 파악은 진실 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파악은 대상의 모든 성질을 드러내고 있기보다는 그것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빠뜨리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자연은 파악을 세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위한 표준이자 그 탐구의 출발점으로 부여했기 때문이다. 파악은 나중에 우리의 정신에 각인될 사물들의 관념의 원천이며, 또한 이 사물의 관념은 이성을 발견하기 위한 출발점일 뿐 아니라 이성의 발견으로 나아가는 넓고 확실한 경로이다(*Academici Libri* 1.41-42).

14) 제논은 지식을 파악하는 과정을 손의 움직임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손바닥을 똑바로 펼친 상태를 “인상”, 손가락을 약간 굽힌 상태를 “동의”, 주먹을 쥐 상태를 “파악”, 그리고 쥐 주먹을 다른 손으로 싸 감아서 꼭 쥐는 것을 “과학적 지식”이라고 말한다. *Lucullus* 2.145 참조.

제논은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사물을 대할 때 인상이 생기며, 이 인상이 확실한 것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동의할 때 자기보증적 인상이 되며, 이때 우리는 사물을 달아나지 못하게 손 안에 쥔 것처럼 파악하게 된다고 말한다. 제논에 따르면, 우리가 사물을 파악할 때 지각이 생기며, 이 지각이 이성(혹은 이성적인 논증)에 의해 부정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 지각은 과학적 지식이 된다.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지각은 인상이라고 말해지는 의견 또는 단순한 신념과 지식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아직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똑똑한 사람이나 우둔한 사람이나 모두 지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지각과는 달리 지식은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획득할 수 있다.

제논의 인식론의 핵심은 자기보증적 인상이다. 자기보증적 인상은 감각에 각인된 "인상"과 이에 대한 "동의"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 단순한 인상은 의견이나 신념의 차원에 머물게 되나, 이 인상엔 동의가 결부될 때 자기보증적 인상이 생성되며, 이는 지식으로 향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자기보증적 인상엔 대한 표준적 공식은 첫째, 자기보증적 인상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from what is) 생성되며, 둘째, 이 인상은 "존재하고 있는 것"과 일치되게 각인되고, 셋째, 이 인상은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는" (from what is not) 생성될 수 없다. 위에서 첫 번째 조건은 자기보증적 인상은 상상이나 미몽에서 발생하는 "허황된 인상" (vacuous impression)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조건은 대상과 인상 사이의 정확한 일치를 말하고 있다. 세 번째 조건은 추가적 조건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신아카데미학과가 제기하는 불구별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¹⁵⁾ 이것은 예를 들어 쌍둥이 "A에 대한 인상"은 "존재하고 있는 A로부터" (from what A is) 생성되어야지, "A 아닌 존재인 쌍둥이 B로부터" (from what A is not) 생성되는 인상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⁶⁾ 제논을 거부하는 신아카데미학과는 과연 감각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또한 과연 동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제논의 인식론을 비판한다.

바로는 위와 같이 아카데미학과, 소유학과, 스토아학파의 철학체계를 정리한 후, 키케로가 구아카데미 성향으로 출발했으나 신아카데미 성향으로 전향했으니

15) 이에 관해서는 다음에 후술된다.

16) 이 세 가지 조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Frede(2005b, 300-311) 참조.

만큼, 신아카데미의 관점에서 각 학파의 철학체계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제1권의 후반부는 키케로의 회의주의적 관점이 들어날 예정이었으나 대화편이 망실된 관계로 우리는 키케로의 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제1권의 2권 부분인 『루쿨루스』를 통해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키케로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루쿨루스』에 나타난 구아카데미의 인식론과 이에 대한 신아카데미의 비판을 아래에서 짚을 바뀐이 분석하고자 한다.

3. 『루쿨루스』에 나타난 인식론: 구아카데미 대 신아카데미

1) 핵심 논변

제2판의 1권에서 바로가 그리스철학에서부터 스토아학파의 이론을 거쳐 안티오쿠스의 이론에 이르기까지의 철학의 발전을 개관하고 있듯이, 제1판의 2권인 『루쿨루스』에서 안티오쿠스의 추종자인 루쿨루스는 마찬가지로 철학의 발전을 개관하고 있다. 제2판의 3, 4권이 남아 있다면, 바로가 루쿨루스를 대신해 주요 화자로 등장했을 것이다. 루쿨루스가 전하는 말에 따르면, 안티오쿠스는 우선 자신의 스승 필론이 『로마서』(Roman Books)에서 “완화된 회의주의”의 입장에서 다시 경직된 “오류가능주의(fallibilism)”으로 되돌아 가는 것에 경악하고 있다. 이런 필론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는 안티오쿠스의 저서가 『소수스』(Sossus)이다. 안티오쿠스의 기본 관점은 지식은 획득가능하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유지했던 오래된 전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식의 획득가능성을 부정하는 이론은 신아카데미학파의 창시자인 아르케실라우스부터 시작되었다. 아르케실라우스는 자신보다 두 세대 앞선 피론(Pyrrho)의 회의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제논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받아들여 지식의 획득가능성을 믿었지만, 그는 특히 감각을 무시했던 플라톤과는 달리 감각을 통해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논리학 또는 인식론은 그래서 감각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회의주의 경향에 빠진 신아카데미학파는 “감각은 오류를 산출하며 감각에 근거한 판단은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스토아학파의 인식론을 비판하며, 그 논거로 “핵심논변”(core argument)과 “추론적 논변”(corollary argument)을 제시한다.¹⁷⁾

우선 핵심논변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¹⁸⁾

- (1) 일부 인상은 참이다.(스토아학파의 관점)
- (2) 거짓된 인상은 자기보증적이 아니다.
- (3) 만약에 참된 인상이 지닌 현상적 내용이 거짓된 인상이 지닌 현상적 내용과 잠재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면, 전자는 자기보증적이 아니다.
- (4) 모든 참된 인상이 지닌 현상적 내용은 일부의 거짓된 인상이 지닌 현상적 내용과 잠재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
- (5) 그러므로 자기보증적 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핵심논변은 우리가 쌍둥이를 인식할 경우나 혹은 꿈속에서 대상을 인식한 경우를 염두에 둔다면, 잘 이해될 수 있다. 제논에 따르면 인상은 참이거나 거짓인데, 참된 인상은 자기보증적이며 거짓된 인상은 자기보증적이지 않다. 그런데 쌍둥이의 경우처럼 참된 인상과 거짓된 인상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면, 참된 인상과 거짓된 인상은 동일한 것이 되고, 결국 자기보증적 인상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신아카데미주의자들은 쌍둥이나 닳은 달걀의 경우 서로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감각에만 의지할 경우 쌍둥이 A와 쌍둥이 B는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들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개개의 사물을 구별해 내지 못하는 감각은 지식의 원천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또한 이들 회의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잠자거나, 취하거나, 미쳐 있거나 하면 감각의 명료성이 떨어지고 약해진다는 제논의 주장에 반대하여, 감각은 인간의 정신 상태에 상관없이 같은 정도로 “명료성”(perspicuity)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즉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상관없이 사물은 각 정신 상태에 있어 같은 정도로 감각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꿈속에서 느끼는 감각이나 깨어 있을 때 느끼는 감각은 그 정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Lucullus 2.84-90).

안티오쿠스는 쌍둥이를 혼동한다든가 꿈속의 사물과 현실의 사물을 혼동하는 데서 거짓된 인상이 생길 수 있지만, 지혜를 가진 현명한 사람은 꼼꼼히 대상을 관찰하기 때문에 거짓된 인상에서 벗어나 쌍둥이나 닳은 달걀도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인상”(persuasive impression)을 획득하게 된다고

17) 핵심논변은 Lucullus 2.40-42, 그리고 2.83에 잘 나타나고 있고, 추론적 논변은 Lucullus 2.66-67, 그리고 2.78에 잘 나타나 있다.

18) 이 설명의 방법은 Britain(2006, Introduction, xxii-xxiii)을 따르고 있다.

주장한다. 안티오쿠스에 따르면 사람들이 현명하지 못할 때, 신아카데미학파가 스토아학파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불구별성”(indiscriminability)의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스탬프를 찍어서 만든 닭은꼴의 작품 하나 하나를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구별해 낼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게 되며, 만약 극소수의 현명한 사람만이 존재할 수 있다면, 스토아학파의 인식이론은 대다수 일반인의 경험과 유리된 편협한 이론으로 머물게 된다.

2) 연쇄법의 역설과 거짓말쟁이의 역설

핵심논변에서 제기되는 불구별성의 문제 이외에, 불구별성의 문제와 연관된 논증으로 “연쇄법의 역설”(the paradox of the sorites)과 “거짓말쟁이의 역설”(the liar paradox)이 있다. 안티오쿠스는 스토아학파나 구아카데미학파가 모두 수용하는 “설득력 있는 인상”을 신아카데미학파가 “연쇄법”(sorites)을 사용하여 “허황된 인상”(vacuous impression)으로 만들고 지식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소리테스”는 곡물의 더미를 의미한다. 곡물 낱알이 모여 곡물더미(heap)를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쇄법에 따르면 낱알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곡물더미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만약 곡물 한 알이 더미를 이루지 못하고, 두 알이 더미를 이루지 못하고, 또한 N알이 더미를 이루지 못한다면, N알보다 한 알이 더 많은 N+1알도 더미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더미는 존재하지만, 더미는 낱알이 모여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모순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이의 역도 성립하는데, 더미에서 한 알씩 계속해서 뺀다고 하더라도 더미라고 할 수 있으므로, 더미는 낱알이 될 수 없다는 역설이 성립한다.¹⁹⁾

제논의 이론에 따르면 신은 거짓된 설득적 인상을 만들 수 있다.²⁰⁾ 신아카데미학파는 연쇄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한다. 제논이 옳다면, 이러한 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참된 인상에 가까운 잘못된 허황된 인상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가까움을 뛰어 넘어서 참된 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허

19) 연쇄법의 역설에 관해서는 Barnes(2005, 17-173) 참조.

20) 꿈이나 계시를 통해 신이 보내는 인상은, 신이 보였기 때문에 설득적이긴 하지만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되다고 할 수 있다.

황된 인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참과 거짓이 동일하다는 모순된 결론이 도출되게 된다.

연쇄법의 전개에 있어서 각 질문마다 대답을 해야 되는 스토아주의자는 연쇄법에 의해 자기의 입장과는 다른 결론에 이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3이 작은 수인가 아니면 큰 수인가?”라는 질문이 스토아주의자에게 제기되었다고 가정해 보자(Lucullus 2.93-94). 또한 정의상 9까지가 작은 수이고 10 이상부터 큰 수라고 하고, 스토아주의자는 이러한 정의를 모른다고 가정하자. 스토아주의자가 1은 작은 수, $2(1+1=2)$ 도 작은 수, 마찬가지로 3부터 8까지도 작은 수, 그리고 9도 작은 수라고 대답했지만, 10이 작은 수냐는 질문에 연쇄법에 휘말려서 예상치 않은 잘못된 결론(즉 10이 작은 수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 같은 두려움에서 대답을 안했다고 치자. 물론 스토아학자는 상대방이 연쇄법을 사용할 때, 상대방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매 질문마다 대답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질문에 언제까지 대답을 해줘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자기가 명확히 아는 질문에만 대답을 하고, 더 이상 계속되는 질문에 대해 자신이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가운데 대답하기를 포기한다면 스토아학자는 판단유보를 택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선택은 불명료성을 파헤치고 진리에 도달해야 한다는 스토아학파의 원칙에서 벗어나게 된다. 위의 예에 있어 스토아주의자는 10이 큰 수냐는 질문에 대답을 회피함으로써 판단유보에 빠지는 동시에, 진리에 대한 탐구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키케로는 연쇄법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을 가진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안티오쿠스가 활용하고 있는 스토아학파의 논리학은 연쇄법에 의한 질문에 어디까지 답을 해야 한다는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연쇄법의 오용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연쇄법이 지닌 모순은 더미가 낱알 몇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정의가 있으면 해소될 수 있다. N개의 낱알이 모이면 더미가 된다고 정의를 내리면 N-1개는 더미가 아니게 되며 N+1개는 당연히 더미가 된다. 그러나 스토아학파는 이런 정의를 내리지 못함으로 해서 모순에 빠지게 된다. 키케로는 연쇄법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는 스토아학파의 논리학은 진정한 지식을 산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키케로는 “거짓말쟁이의 역설”을 이용하여 인상에는 ‘참된 인상’과 ‘거짓

된 인상'의 두 가지밖에 있을 수 없다는 스토아학파의 원칙과는 모순되는 결론을 안티오쿠스로 하여금 도출하게 하고 있다. 거짓말쟁이의 역설은 거짓말쟁이가 참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거짓말쟁이의 얘기(예를 들어 거짓말쟁이 A가 $1+1=2$ 이라고 말한다고 하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삼단논법에 의하면 거짓말쟁이의 얘기는 거짓으로 판명되나, 안티오쿠스는 거짓말쟁이의 역설은 스토아학파의 논리로 "해결 불가능한" (insoluble) 예외적인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스토아학파가 받아들이는 참과 거짓 이외에 제3의 범주를 인정하는 모순을 저지르게 된다.

키케로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삼단논법을 활용한다 (Lucullus 2.96).

만약에 지금이 환하다면, 환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환하다.

그렇다면 지금은 환한 것이다.

이 삼단논법의 결론이 맞다면 다음 두 번째 삼단논법의 결론 역시 맞아야 한다.

만약에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위 두 삼단논법은 똑같은 형식논리를 따르고 있으므로 첫 번째 삼단논법의 결론이 맞다면 두 번째 삼단논법의 결론 역시 맞아야 한다. 그러나 안티오쿠스는 두 번째 삼단논법의 결론을 부정한다. 그는 거짓말쟁이가 옳은 말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거짓말쟁이의 경우 그 결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키케로는 참된 인상과 거짓된 인상이란 두 범주만을 수용하고 있는 스토아학파가, 참되지도 거짓되지도 않은 인상을 해결불가능이란 미명 아래 인정한다는 것은 논리체계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스토아학파의 논리를 거부한다.

3) 추론적 논변

신아카데미학파의 핵심논변을 보완해주는 또 다른 논변이 “추론적 논변”이다. 추론적 논변은 스토아학파의 합리성에 관한 주장, 즉 “비자기보증적 인상”(not self-warranting impression or noncataleptic impression)에 동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핵심논변의 결론인 [5]가 맞고, 스토아학파의 합리성 명제가 맞다면 어떠한 인상에도 동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²¹⁾

[5] 만약에 자기보증적 인상이 없고(신아카데미의 주장)

[6] 비자기보증적 인상에도 동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스토아의 주장)

[7] 그러므로 어떠한 인상에도 동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신아카데미의 핵심논변은 위 추론적 논변의 대전제인 자기보증적 인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추론적 논변은 핵심논변에서 도출된 결론을 대전제로 삼아 출발하고 있다. 대전제에 따르면, 인상에는 자기보증적 인상과 비자기보증적 인상이 있는데, 자기보증적 인상이 없다면 비자기보증적 인상만 남게 된다. 스토아학파가 주장하는 소전제에 따르면, 남아 있는 비자기보증적 인상에도 동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 된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인상에도 동의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된다. 이러한 추론에 따르면 지식의 확실성을 주장하고 있는 안티오쿠스의 논리, 다시 말해 스토아학파의 논리는 무너지게 된다.

키케로는 상기 [5]~[7]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 있다(Lucullus 2.67).

[8] 만약 현명한 사람이 무엇인가에 동의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는 가끔 의견을 갖게 된다.

[9] 현명한 사람은 결코 의견을 갖지 않는다.

[10] 그러므로 그는 결코 무엇인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핵심논변의 결론 [5]는 자기보증적 인상이 없다는 것인데, 자기보증적 인상이 없는 경우 [8]의 대전제와 같이, 현명한 사람이 동의를 하지만 의견을 갖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스토아학파는 [9]의 소전제와 같이 현명한 사람은 결코 의견을

21) 이 설명의 방법은 Britain(2006, Introduction, xxiii)을 따르고 있다.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이 의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동의의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스토아학파는 [7]과 [10]의 결론처럼,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면 사람들은 판단유보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어떠한 행동도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무행동 논변”(inactivity argument)을 제시하여 신아카데미 회의주의자들을 공격한다. 스토아학파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판단을 하고 있고 이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식을 부인하고 판단유보를 하게 되면 인간의 삶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냐고 신아카데미학파에게 반문한다. 루쿨루스는 스토아학파의 관점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지혜 또는 지식이 행동의 원천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혜에 관해서 살펴보자. 우선 첫째로 지혜가 자신이 지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며 어떻게 지혜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겠는가? 둘째로, 지혜가 자신이 추구해야 할 아무 것도 없다면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용기를 가질 것이며, 행동과 연결되는 목적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진실로 지혜가 최종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심하고, 모든 행동의 준거점이 되는 그 목적을 모른다면 어떻게 이것이 지혜라고 불릴 수 있겠는가? 여기에 또 다른 확실한 논거가 있다. 지혜가 행동하려 할 때 따라야 할 어떤 것인가가 최초의 사물로 규정되어야만 하며, 이 최초의 사물은 우리의 본성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충동,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인상을 심어주려는 대상을 향한 충동은 작동할 수 없다 (Lucullus 2,24).

이러한 스토아주의자들의 옹호논리에 대한 신아카데미학파의 대응은 크게 급진적 회의주의(radical scepticism), 완화된 회의주의(mitigated scepticism), 오류가능주의(fallibilism)의 입장에서 전개된다(Brittain 2006, Introduction, xxv-xxx). 첫째, 클리토마쿠스로 대변되는 급진적 회의주의자는 제논이 자신의 인식론에 있어서 지식의 기초로 삼고 있는 자기보증적(self-warranting) 인상을 객관적인 인상과 주관적인 인상으로 나누어, 회의주의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자기보증적 인상은 부인하나, 주관적인 자기보증적 인상은 존재한다고 믿으며, 나아가 이 인상이 설득력을 가질 때 우리는 동의(assent)가 아닌 승인(approval)을 통해 이 인상을 “진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한다.²²⁾ 또한 이들은 본능적인 행동이나 습관적인 행동

또는 불확실성 하에서의 행동은 동의라는 절차 없이도 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간단히 말해 급진적 회의주의자들은 스토아주의자들이 강조해 마지않는 지식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동의라는 절차가 없어도 행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두 번째 입장은 완화된 회의주의로서 기본적으로 파악불가능성은 받아들이지만 모든 동의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다. 완화된 회의주의자는 동의를, 불합리한 것을 배척하면서 “합리적 신념”(rational belief)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절차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합리적 신념은 물론 파악과는 구별된다. 필론은 『로마서』를 쓰기 이전에 이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다. 완화된 회의주의와 급진적 회의주의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전자는 적절한 조건에서 충분히 강력한 증거(evidence)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설득력 있는 인상에 동의를 부여해 진리로 믿는다는 점에서 후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 번째 입장은 『로마서』에 나타난 필론의 입장으로서 오류가능주의인데, 한 마디로 진리는 존재하지만, 그 진리가 오류일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것이다. 필론은 진리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자기보증적 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카르네아데스의 절대적 회의주의를 거부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동의를 얻은 자기보증적 인상도 틀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류가능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회의주의로 복귀하고 있다. 안티오크스는 필론의 변질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4) 진리의 기준에 대한 반증: 역동적인 헬레니즘철학

키케로는 신아카데미의 입장에서 『루쿨루스』의 후반부를 마무리한다. 그는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카르네아데스의 입장을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그가 지식의 존재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앞서 무행동 논변에서 애기된 바와 같이, 지식이 없어도 행동할 수 있으며, 설득력 있는 인상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후반부의 앞부분(Lucullus 2.64-111)에서는 논리적으로 스토아학파의 인식론을 공격하여 진리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한편, 뒷부분(Lucullus 2.112-146)에서는 철학사를 조망하는 과정을 통하여 많은 학파들

22) 동의는 지식 그 자체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승인은 지식이라고 믿는 신념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의 진리에 대한 주장이 아직도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진리가 획득 가능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진리의 기준에 대한 상이한 주장이 존재해왔다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키케로는 헬레니즘 철학의 전통에 따라서 철학을 물리학, 윤리학, 논리학의 세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의 발전사를 조망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는 물리학의 주요 대상인 천체나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스토아학과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데, 제논은 에테르(ether)가 최상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그의 제자 클레안테스는 태양을 모든 사물의 지배자로 생각하고 있다. 물리학 분야에서 지식획득은 불가능하지만, 물리학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키케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자연에 대한 관찰이나 관조는 소위 우리의 정신과 지성에 자연적 음식을 공급한다. 우리는 일어나며, 허공으로 들려진 것 같고, 인간사를 내려다보며, 그리고 숭고한 천상의 사물을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일을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으로 경멸한다. 최고로 위대한(혹시나 또한 최대로 숨겨진) 사물을 탐구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기쁨이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처럼 여겨지는 어떤 것을 만난다면, 우리의 정신은 완전하고 아한 기쁨으로 충만될 것이다(Lucullus 2.127).”

둘째, 윤리학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고, 각 학파 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윤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생의 목적과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도 학자나 학파마다 다른데, 대표적으로 에피쿠로스학과 스토아학파는 쾌락과 덕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스토아학파를 추종하고 있는 안티오쿠스의 행복한 삶에 대한 정의도 제논의 정의와 다르게 나타난다. 제논은 덕만이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안티오쿠스는 덕 이외에도 외부적 재화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논리학분야에 있어서, 프로타고라스나 플라톤과 같은 학자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학과와 같은 각각의 학파가 주장하는 진리의 기준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프로타고라스는 감각을 강조하나, 플라톤은 감각의 도움을 받지 않는 지성에 의해서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³⁾ 스토아학과와 논리학을

23) 플라톤과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에 관해서는 김용민(1999) 참조. 키케로는 플라톤의

따를 경우, 현명한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인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현명하지 못한 우리는 “지금은 환하다”라는 명백한 사실도 알 수 없게 된다. 스토아학파의 경우처럼, 논리학이 있어도 우리가 꼭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논리학이 없어도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논리학이 “체계적 기예”(systemic art)와 “기술”(skill)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논리학이 없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지식을 추구할 수 있다.

키케로는 스토아학파의 논리학을 이론적 측면-핵심 논변, 추론적 논변, 두 가지의 역설-과 철학사적 측면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데, 전자는 내재적 비판, 후자는 외재적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비판이 서로 결합하여 강력한 반대이론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키케로가 어디에 더욱 강조를 두고 있는가도 재미있는 질문이 될 수 있다. 키케로는 근본적으로 회의주의자이기 때문에 지식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²⁴⁾ 그는 당대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던 스토아학파의 논리학 혹은 인식론에 대해 수세적 입장에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판 방법은 외재적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외재적 비판의 방법을 활용하면 할수록, 즉 그가 더 많은 철학자들의 진리의 기준에 대한 주장을 드러내어 밝히면 밝힐수록, 후세의 우리는 헬레니즘철학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갖게 되는 이득을 누릴 수 있다. 키케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헬레니즘시대가 철학적으로 역동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데아론에 대해 중립적으로 상당히 간략하게 소개할 뿐이며, 적극적인 옹호는 회피하고 있다.

- 24) 글루커(John Glucker)와 스타인메츠(Peter Steinmetz)는 키케로가 두 번씩 학문적 정향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 변화는 키케로가 젊었을 때는 필론의 추종자였고 회의주의적 아카데미주의자였으나 후에 안티오쿠스의 구아카데미를 받아들였던 변화이고, 두 번째 변화는 기원전 45년에 구아카데미에서 카르네아데스와 필론의 회의주의로 바뀌었던 변화이다.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괴르러(Woldemar Görler)는 키케로가 기원전 45년에 이르기까지 영혼의 불멸성, 신의 존재, 덕의 충분성 등과 같은 교리를 믿는 교조적 경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키케로는 이 시기에도 근본적으로 회의주의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보고 있다. 괴르러(1995, 85-86) 참조.

IV. 결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죽기 이전에는 고대 그리스에서 진정한 회의주의적 학파는 존재하지 않았다. 고전 그리스철학시대에 있어서 지식에 관한 문제는 플라톤의 『테아이티토스』(*Theaetetus*)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지식이 무엇인가?”(what is knowledge?)의 문제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후, 제논, 에피쿠로스, 피론, 아르케실라우스 등의 헬레니즘시대 철학자들에 의해 지식의 문제는 “지식이 과연 존재하는가?”(Is there any knowledge?) 또는 “어떻게 지식이 가능한가?”(How is knowledge possible?)라는 문제로 인식론적 전환이 이루어졌다(Brunschwig 2005, 229-232). 제논과 에피쿠로스는 지식이 존재하고 획득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전문적인 철학적 용어를 조어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인식론을 발전시켜 갔음에 비하여, 아르케실라우스부터 시작해서 회의주의적 경향에 빠진 아카데미는 인식론을 부정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진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아카데미가 기존의 전문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이들의 관점이 부지불식간에 스토아주의에 젖어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기원전 1세기경에 끝난 헬레니즘철학시대의 바깥에 위치한 키케로는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부활, 신·구아카데미의 쇠퇴, 스토아학과 에피쿠로스학파의 쇠퇴 등에 힘입어, 기존의 철학적 도그마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탐구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카데미의 특징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카데미의 특징은 자신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진리에 가장 접근한 것처럼 보이는 결론을 인정하고, 논쟁들을 비교하고, 어떤 의견을 위해서 말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또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함이 없이 탐구자의 판단에 완전히 자유롭게 맡겨 놓는 것이다(*On Divination* II. 150).” 철학 작품을 저술함에 있어서, 키케로는 자신의 논거를 그리스 작품들에서 끌어온 다음, 그 주장을 남이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박학다식에서 우러나온 예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을 취했다. 그는 다른 모든 철학 학파의 관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했으며, 그 주장들을 하나씩 상호 비교했으며, 이성적으로 가장 일관되어 보이는 이론을 옹호했다.

키케로는 헬레니즘철학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논리학-물리학-윤리학의 철학체

계를 가지고 일단 고대 그리스 철학을 체계적으로 조망한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다양한 학파의 이론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절충하려 하였다. “자신의 필요”는 때에 따라, 자기 자신을 위로할 목적으로, 로마시민을 철학적으로 교육시킬 목적으로, 아들을 교육시킬 목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키케로가 로마인의 관점에서 필요에 따라 철학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편협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 철학체계를 “찬성과 반대라는 양쪽의 측면”에서 논쟁을 거쳐 정당화함으로써 그는 보다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철학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키케로는 『아카데미의 회의주의에 관하여』에서 지루한 논쟁에 휩싸였던 인식론의 위상을 “찬성과 반대라는 양쪽의 측면”에서의 대화를 통해 한 차원 높게 격상시키고 있다. 격상된 인식론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지식이 획득가능하건 불가능하건 간에 인간의 삶에 있어 근원적이라는 것이다. 그 근원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미 인식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우리는 물리학이라는 나무를 올라가 윤리학이라는 열매를 따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08년 4월 30일

심사일 2009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 2009년 5월 13일

참고문헌

- 김용민, 1999. “플라톤과 루소에 있어서 지식과 정치.” 『한국정치학회보』 33집 1호, 49-67.
- 김용민, 2007. “키케로의 정치철학: 『국가에 관하여』와 『법률에 관하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6집 1호, 1-33.
- 김용민, 2008. “키케로에 있어서 수사학과 정치.” 『한국정치연구』 17집 1호, 217-239.
- Algra Keimpe, Jonathan Barnes, Jaape Mansfeld and Malcolm Schofield, eds. 2005. *Hellenistic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nes, Jonathan, Susanne Bobzien, and Mario Mignucci. “Logic.” Algra, Keimpe, et als. *Hellenistic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ittain, Charles. 2006. *Cicero On Academic Scepticism*. Indianapolis/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 Brunschwig, Jacques. 2005. "Introduction: the beginning of Hellenistic epistemology." Algra, Keimpe, et als. *Hellenistic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icero. 1967. *De Oratore or On the Ideal Orator*. E. W. Sutton, trans. The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67. *De Finibus Bonorum Et Malorum or On the Chief Ends of Good and Evil*. H. Rackham, trans. The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70. *De Re Publica and De Legibus*. Clinton W. Keyes, trans. The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71. *De Devinatone or On Divination*. William Armistead Falconer, trans. The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71. *Tusculan Disputations*. J. E. King, trans. The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72. *De Natura Deorum or On the Nature of the Gods*. H. Rackham, trans. The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6. *Academica or On Academic Scepticism*. Charles Brittain, trans. Indianapolis/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 Frede, Michael. 2005a. "Stoic epistemology." Algra, Keimpe, et als. *Hellenistic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5b. "Epilogue." *Hellenistic Philosophy*. Algra, Keimpe, et als. *Hellenistic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örler, Woldemar. 1995. "Silencing the Troublemaker: *De Legibus* I. 39 and the Continuity of Cicero's Scepticism." J. G. F. Powell, ed. *Cicero the Philosopher: Twelve Papers*. Oxford: Clarendon Press.
- Powell, J. G. F., ed. 1995. *Cicero the Philosopher: Twelve Papers*. Oxford: Clarendon Press.
- Rowe, Christopher and Malcolm Schofield, eds. 2000. *Greek and Roman Polit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od, Neal. 1988. *Cicero's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BSTRACT

Cicero and Hellenistic Philosophy: Focusing on Hellenistic Epistemology in Cicero's *On Academic Scepticism*

Yang Min Kim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eriod of Hellenistic philosophy started from the death of King Alexander in 323 B.C. and ended in around 100 B.C., when the revival of Platonism and Aristotelianism began to arise. As Cicero was born in 106 B.C. and died in 43 B.C., he was able to overview all the developments of Hellenistic philosophy. His philosophical status was so peculiar that no other scholars could compete with him. His contributions to Hellenistic philosophy can be pointed out in two respects. First, he is a philosophical journalist who delivers the major contents of Hellenistic philosophy, about which other original sources are almost lost. Without Cicero's works, it is very difficult to reconstruct Hellenistic philosophy. And second, though he belongs to the Academic sceptics, he is not constrained by New Academy's dogmas: he dares to question all of philosophical claims by New Academy, Peripatetic, Stoics, Epicurean, and Old Academy and defends the most probable claims after comparing each philosophical school with another. Cicero accepts the tradition of Hellenistic philosophy that the philosophical system is composed of three areas of logic, physics, and ethics. Exploiting the philosophical system of logic-physics-ethics, he explains the essential aspects of the various philosophical schools on the one hand, and he writes his own philosophical works. On the other hand *On Academic Scepticism* is the dialogue from which his philosophical system of logic-physics-ethics starts. In this dialogue, he attempts to uphold the status of epistemology and deliver the strong message that knowledge is the deepest source for living an ethical life. Without understanding this dialogue, we can never get into the Cicero's own philosophical system.

Keywords: New Academy, Old Academy, Stoicism, Zeno, Antiochus, Hellenistic philosophy, logic, epistemology, self-warranting impression, vacuous impression, scepticism, criterion of truth, sorites, paradox, indiscriminability problem, inactivity argument